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f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대기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지혜 6,12-16

[화답송] ..... 시편 63(62),2.3-4.5-6.7-8(◎ 2c 참조)



(후렴) 주 - 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 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제2독서] ..... 1테살 4,13-18

**[11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인공 지능)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언제나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 마태 25,1-13

**[성가안내]**

- 입당성가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 봉헌성가 [423] 천년도 당신 눈에는
- 성체성가 [172] 그리스도의 영혼
- 파견성가 [519] 영원한 안식을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남정희 아네스	이은경 헬렌
배재철 안토니	안선정, 배옥희
박종복 알골소 세오	김 보나
이덕희 토마, 박상병	이 수산나
생미사	익명
김성인 미카엘 신부	이 수산나
김기덕 스테파노, 김 엘리자벳	익명
김학분 루시아 가정	
홍 범 요한 가족	이서원 마리로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예물봉헌	성가대 성찬봉사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1월 8일	이은경 헬렌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웅 사도요한	민덕미 안젤라	—	안선정 마리안나	
11월 15일	박기목 알버트	민완준 필립보	민재인 데레사	민완준 필립보	—	김영숙 카타리나	

Q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에서 몇 년간 지내실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A 지난 23년간 St. Francis of Assisi 한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미사에서 성체와 성혈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는 직장을 한국으로 옮겨 잠시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공동체로 옮겨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6~7개월 동안의 제 신앙생활은 전염병 창궐 이후 두려움이라는 그늘에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주일에 성체 모시거나, 교우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고, 제 신앙의 버팀목이었던 성서 모임도 한동안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다시 연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두려워 주일미사 참례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미사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제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다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가면 이 두려움을 저절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환경이 바뀌어도,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뉴욕이든 한국이든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려 봅니다. 신앙인이란 환난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혼자 갇혀 살면서 너무나 저 자신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었을까요? 만일 저 자신보다는 타인의 안전을 더 염려하며,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타인들을 더 열심히 살피고 도움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만을 너무 바라보다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제 무리를 떠나 잠시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더 살피지 못하고 저 자신만 바라보았던 지난 반년간의 시간이 너무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이러한 빛진 마음으로 23년 동안의 터전이었던 이 본당을 떠나게 되어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제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건강함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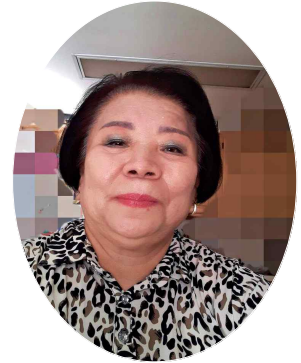
-문예하 소피아바라(2줄 왼쪽끝)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지군자(스테파니)↴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3.30 정인해 예로니모
- 4.4 김춘운 요셉
- 4.8 김화자 소화데레사
- 4.12 이신환 마르코
- 4.24 임태흠 실베스텔
- 4.24 이민재
- 4.29 방효덕
- 5.8 원광남
- 6.1 이경자 벨라뎃다
- 7.5 이창울
- 8.22 박송남 프란치스코
- 9.20 배재철 안토니
- 9.21 김정숙
- 10.3 황봉애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 1. 미사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미사 :
    - 토요일 4:00 pm
    - 일요일 8:00 am, 9:15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 2.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 1)손 세정
    - 2)마스크 착용 후 입장합니다.
  - 3. 성당에는 신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표시를 부착해 놓았으니 표시가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가족은 합석 가능).
  - 4.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이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주일미사를 온라인으로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5. 실시간 온라인 미사 중계 :
    - 미국본당 홈페이지 <https://stfrancisnyc.org> 방문, "9:15 Korean Mass"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해당 사이트에 있는 "Donation" 클릭하여 본당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시간 동안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 한 줄로 서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 성체만 손으로 받아 영합니다.

꾸리아 Zoom 회합

대상 : 본당 레지오 간부  
 일시 : 11.15(주일) 11:00-12:30  
 Meeting ID : 867 1257 5374  
 Password : 8ebuJB

위령성월, 묘지방문 전대사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기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이때, 본당에서는 적은 금액이나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손길을 원하시는 신자분께서는 아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익명을 보장합니다. seoulsb@gmail.com 첼레스틴 수녀

손님 신부님 미사 일정

새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중입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11.29 : 김기수 프란치스코신부  
 12.6 | 13 : 김학범 알폰소신부(메리놀회)  
 12.20 | 27 : 조홍래 베드로신부(뉴약대교구)

[주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https://stfrancisnyc.org> ⇨ 스크롤을 내리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 "주보" 버튼



2021년 주보 광고

○ 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뒷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달력배부 안내

12월 초중순에 달력배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달력배부는 직접 수령이 원칙이었으나 초유의 사태인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1. 전달할 수 있는 분에게 의뢰.  
 2. 원거리 거주 신자분을 대상으로 발송.  
 직접 전달할 수 있거나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적 보편성"을 지향하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믿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톨릭의 평신도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꽃입니다.

-이순구(베네딕도)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50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 위령성월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사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등)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WEST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Adex**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레지오 회합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구세주의 모후pr	주일 08:00am	Conf. Rm(2F)
바다의 별pr	주일 08:00am	교육관 3
은총의 샘pr	수 03:00pm	Korean Conf. Rm(2F)
평화의 모후pr	수 07:30pm	Korean 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pr	화 07:00pm	Korean Conf. Rm(2F)
신비로운 장미pr	월 07:00pm	Korean Conf. Rm(2F)
사랑의 샘pr	주일 01:00pm	Conf. Rm(2F)
희망의 모후pr	목 07:00pm	Korean Conf. Rm(2F)